

회원교회 이모저모



소식 하나, 성금모금 생방송



기독교TV(CTS 감경철 사장)는 재해구호 성금모금 특집생방송 '예수사랑어기'를 통해 모금된 성금 4천4십7만3천6백원을 지난 10월 31일 한국교회봉사단에 전달했다.

※ 교회 또는 기관에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면 사무국(02-747-1225)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표지
달콤한 사탕보다 굵주린 배를 채워 줄 식량이 필요했던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한국교회봉사단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

11월, 12월 행사 안내



소식 둘, 회비/후원금을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나다순서입니다.

★ 회비

- 고명성 목사(추점교회)
- 기독교대한성결
- 김동배 교수(연세대사회복지과)
- 김득연 회장(동성진흥)
- 김양원 목사(신망애복지재단)
- 김원호 목사(석삼침례회)
- 김정규 장로(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 김종생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 김준수 권사(천안하늘중앙교회)
- 김현숙
- 박홍자 장로(한국급식협회)
- 백태중 목사(강동교회)
- 서재일 목사(원주영강교회)
- 손달익 목사(서문교회)
-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 송종원 목사(수원삼일교회)
- 양해규 목사(수원중앙회)
- 어덕선
- 오영택 목사(월드비전교회)

-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 오진석 목사(하나성결교회)
- 우창록 변호사(울촌법무법인)
- 유인석 목사(과천소망교회)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 이만식 교수(장신대학교)
- 이봉관 회장(서희건설)
- 이 순 목사(천안중앙교회)
- 이은화 권사(경신복지재단)
- 이재원 관장(중로종합사회복지관)
- 이태훈 소장(수원동부성폭력상담소)
- 장윤제(한미자) 목사(한국복지목회협의회)
- 장현승 목사(과천소망교회)
- 전성원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 전윤원 목사(석천광명교회)
- 전현표 목사(상동사랑교회)
- 정명철 목사(도림교회)
-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 정우담 교수(예성총회 사회복지부)
-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 조남선 사무총장(매가죽협회)
- 조홍식 교수(서울대사회복지과)
- 지형은 목사(성락교회)
- 최희범 목사(한국교회봉사단 상임총무)
- 추연호 목사(은파교회)
-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

★ 후원금(지정후원)

- 강북제일교회, 광주은광교회, 우리들교회

※ 이름(직함, 소속)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분이 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국(02-747-1225)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의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교회, 단체, 개인 회원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월회비 임원/이사/실행위원(20만원 이상), 중앙위원(10만원 이상), 회원(5천원 이상)

후원금 한국교회봉사단의 사업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액수에 관계없이 상시 후원가능합니다.

방 법

1. CMS(자동이체) : 02-747-1225로 연락하여 신청 바랍니다.
2. 온라인이체 : 신한은행 100-022-688472 예금주) 사단법인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계좌로 송금 바랍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법인세법 제 24조 소득세법 제 34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수확성경제작 시사회

일시 2009.11.26(목) 13:00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내용 수확성경제작(마태복음) 감사예배 및 시사회

장소 서해안 원유유출 피해지역 중 소원면과 원북면의 15개 마을회관

내용 2,0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잔치(문화공연, 식사, 레크레이션)

★ 서해안 원유유출 2주기 '원유유출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 발표회

일시 2009.12.3(목) 14:00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한국교회가 노숙인과 함께하는 2009 거리의 성탄잔치

일시 2009.12.24(목) 11:00~14:00
장소 서울역 외 전국 15개 지역 동시 진행
내용 성탄의 기쁨을 거리와 쉼터와 쪽방에서 생활하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리의 성탄절로 함께함. 축하행사 | 공연, 선물과 급식제공

★ 2009 바다마을 성탄잔치

일시 2009. 12. 24(목), 11:00~14:00



행복한 섬김 섬김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예비호 2009년 11월호

주소 110-7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5호

전화 02-747-1225, 팩스 02-764-1225

홈페이지 www.servekorea.org

발행인 김삼환 편집인 이상화



요셉의 꿈을 이 땅 위에

복수 대신 같이 울고 책임을 잘 감당하여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한 요셉과 같이,
이웃의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에 대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 주셔도 될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책임 있는 중보기도로 선한 손을 움직여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의 파도들을 극복할
사랑의 능력 가득한 한국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아시아 재해현장 구호사역 보고

필리핀 수해구호 및 의료봉사

1차 긴급구호 사역

- 기간 2009. 9. 30 ~ 10. 3
- 대상지역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외곽 타이타이 마을과 리잘지역
- 지원성격과 내역 1차 긴급구호사역 1,500만원, 쌀5kg, 녹두1kg, 마른생선, 소금, 설탕, 비스킷 등(원화 1만원 상당), 1,000가정에 직접 전달했고, 이 지원은 6인 가족 기준으로 2일분에 해당
- 디렉터: 필리핀기독교교회협의회 구제와 갱생위원회
- 자원봉사자 위 위원회 소속의 청년 자원봉사자 20여명
- 동행취재 CBS와 CTS 취재기자 3명

2차 의료봉사 사역

- 기간 10. 14 ~ 10. 17
- 대상지역 필리핀 라구나호수 근처의 가옥침수 마을
- 의료진 전주예수병원(4명 - 의사 2명, 간호사 2명), 대구삼덕교회 긴급구호단(6명-의사2명, 간호사2명, 약사1명, 어린이사역1명)
- 진료내역 내과, 가정의학과(소아과), 외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피부질환 진료 대상자 750여 명에게 3-5일분의 약품 제공



인도네시아 지진구호

- 기간 2009. 10. 7 ~ 10
- 대상지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빠당시
- 지원성격과 내역 1차 긴급구호사역 2,830만원, 쌀5kg, 라면1박스, 설탕, 식용유, 케첩(맛간장), 비누 등(원화 2만원 상당), 1,100가정에 직접 전달했고 이 지원은 5인 가족 기준으로 7일분에 해당
- 디렉터 인도네시아 8개 교단 기독교연합회(YTB)
- 자원봉사자 인도네시아 선교사회(통합) 소속 선교사 12명
- 동행취재 CBS와 CTS 취재기자 3명



아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 재해구호 후원자 명단

교회 및 기관	CTS기독교TV		말씀교회		서현교회		신망애교회		염산교회	
	강변교회		명성교회		성락교회		신천교회		울산교회	
	기독교대한성결		사랑의교회		소성함을얻는교회		안광병신경과		전주예수병원	
	덕수교회		삼덕교회		수원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구촌교회	
개인	강대식	김경옥	김용주	문경구	박정	원복순	이용수	장수미	최종기	
	강인숙	김대기	김은영	문종원	박춘건	원진	이지현	전문옥	홍현자	
	곽금희	김명래	김종한	박선숙	서정린	이미숙	이하나	정병우	황금란	
	권종성	김용숙	김진홍	박영자	오수지	이석분	장규옥	정영희	황은진	

현지 피해주민의 필요에 따라 한국교회는 사랑의 빛을 갠는 구호사역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호사역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기도와 성금모금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재해구호 모금계좌 신한은행 100-022-688472 (예금주 :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봉사단)



돕되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할 책임



sun인웅 목사 | 한국교회봉사단 공동대표, 덕수교회

배고픔과 씨름하는 식량의 문제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주거공간의 문제 그리고 방치되다시피 한 건강의 문제는 늘 쌍생아처럼 따라다닌다

을 고스란히 당하며 그들이 고백한 것은 ‘바다가 죽으니 사람도 살수 없다’는 절규 그 자체였다. 10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피해 현장을 찾아 바위와 모래를 닦으면서 “바위와 모래를 닦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잘못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닦는다”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 다시금 가슴을 울린다.

그래서 복음과 사랑으로 빛진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이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돕되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우리가 식후 마시는 커피 한잔 값이면 한 달을 먹고사는 이들에게 밥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돕되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도울 수 있어야 하겠다. 사적인 관계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 피해 정도와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보다 빨리 많이 가지려고 했던 욕심을 버리고 주님 중심의 경건한 삶과 절제된 삶으로 주신 자원을 아끼며 사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수많은 자연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하늘은 더 큰 심판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연이어 발생하는 이상징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필리핀에 불어 닥친 태풍 켈사나와 파르마로 인한 수재, 인도네시아의 리터 규모 7.6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 인도의 폭우로 인한 수재, 대만의 강진과 뉴질랜드의 폭설 등등 그야말로 지구의 탄식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다양하게 지적해 왔다. 풍요와 편리만을 추구하며 자행해 온 무분별한 난(?)개발과 문명의 이기들에 기대어 남용하고 있는 각종 자원들로 지구가 몸살을 앓으며 아파하는 몸짓이 각종 재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서해안 원유유출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인간의 욕심과 부주의로 바다에 원유가 쏟아졌고, 바다에 살던 온갖 생명이 자취를 감추며 바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바다의 무한한 생명체를 채취하고 판매하여 생업을 이어가던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잘못 관리한 바다의 처절한 보복

책임감 있는 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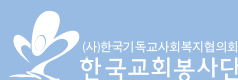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롬 8:22)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게 해 주기를 소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보전하고 건강하게 가꾸지 못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재해의 아픈 현장은 이러한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재해의 현장 어디에서나 지구촌 가난한 이들이 항상 피해자들이라는 점이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들은 기아선상에서 배고픔과 씨름하는 식량의 문제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주거공간의 문제 그리고 방치되다시피 한 건강의 문제는 늘 쌍생아처럼 따라다닌다.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자

희생과 사랑 양보와 포용의 정신이 가득 넘쳐
꿈과 희망이 싹트고 열매 맺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을 가다

켓사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꽃피운 헌신

어느 날 갑자기 팔과 몸에 수십 개의 상처가 생겼지만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의료팀과 만났을 때 이미 몇 개의 상처는 괴사 단계까지 이른 상태였다

9월 26일(토) 태풍 ‘켓사나’와 10월 3일(토) ‘파르마’는 필리핀의 동북부를 강타했는데 하루 동안 455mm의 집중호우에다 마닐라만의 만조시각이 겹치면서 메트로 마닐라 지역 중 마르키나, 빠야마스과 리잘 지역, 라구나 호수 인근 80%을 침수시켰다. 300여 명의 사망자, 59만여 채의 가옥침수, 25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9월 30일 1차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필리핀기독교교회협의회(NCCP)와 더불어 마닐라 북동부 리잘 지역의 파이파이 마을 이재민 1000가구 6인 가족 이틀분 식료품(쌀 5kg, 녹두 1kg, 설탕, 소금, 비스킷, 말린 생선 등)을 전달하였다.

리잘 지역 중 인접한 강가에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마을은 켓사나가 지난 지 일주일일이 되었음에도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 마을 주민들의 발이 묶여 며칠을 굶고 있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켓사나’ 이재민 로베르토 올리바(49, 남)는 “제 생애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이 더 컸다”며 “먼 거리에서 신속히 달려와 도움을 준 한국 교

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리잘 소재 감리교 신학 교육사 양성 학교에서는 임직원 및 전교생이 3일간 저녁 금식하며 모금활동을 전개해 \$3,000을 모아 이재민들에 구호품을 전달하였다.

방치의 아픔

피해현장은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된 거리에는 쓰레기와 생활하수가 뒤섞여 이재민들은 오염된 물에 무방비로 지내고 있어 수인성 전염병 및 여러 질병 발생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들을 위한 2차 구호팀으로 전주예수병원(김민철 원장)과 대구삼덕교회(김태범 목사)의 의료봉사팀으로 내과, 가정의학과(소아과), 외과 등의 의사와 간호사, 약사, 한국교회봉사단 직원 포함 12명의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였다. 10월 14일~17일 의료봉사활동은 현지의 한경균 선교사의 안내로 필리핀기독교연합교회(UCCP)와 함께 지역을 선정했다. 링가메 모리얼교회(Lingga Memorial Church)에서 20여 명의 교회 스텝 및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32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타들락(Tadlac)의 이재민 149가구가 텐트에



서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천막을 친 임시 진료소에서 로스바노스(Losbanos) 소재 트라스(Trase) 간호대학생 1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43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장시간 물속에서의 생활로 곰팡이균 감염과 감기환자들이 많았고, 오염된 물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 중에는 원인 모르는 피부상처로 심각한 염증을 보유한 환자들도 있었다. 링가마을의 알렉스(41세, 남)는 5년 전부터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데, 10월10일부터 갑자기 왼쪽 팔과 몸에 수십 개의 상처가 생겼지만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우리 의료팀과 만났을 때는 심각한 염증을 앓고 있었고 몇 개의 상처는 괴사 단계까지 이른 상태였다. 한 시간 가까이 수십 개의 염증을 도려내며 치료하는 동안 환자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으며 견뎌내고 자신을 치료해 준 한국 교회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구호활동 현장에 서서

다시 다음을 준비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해맑게 웃으며 우리를 반기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도움”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진영 간호사 | 전주예수병원

늘 꿈꿔왔던.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너무 기쁘고 신나서 덤덱 신 청해 놓고 나니. 문득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긍휼함으로 그들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셨다.

한국교회봉사단, 예수병원 팀과 대구 삼덕교회 식구들. 워낙에 급하게 구성되었고, 뼈뺀 일정에 제대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이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모두들 소망함을 품고 기쁨으로 달려온 분

들이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지만 그들을 만나던 날 내 자신이 너무나 교만했음을 깨달았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해맑게 웃으며 우리를 반기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도움”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에 더욱 큰 아쉬움인걸까. 그들에게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수 없었던 나의 얕은 영어실력도, 밀려드는 환자들에 정신없어 기도해주지 못한 것도,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수많은 동역자들과 좀 더 나누지 못한 것 모두 마음에 남았다. 하지만 이

런 아쉬움이 있기에 다음을 기대할 수 있고, 준비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필리핀에서의 60시간. 그저 신나서 들떠있던 내가 아니었기를. 그들의 육신의 아픔보다 병든 영혼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언젠가 또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준비되기를. 아직도 그들의 맑은 눈망울과 따뜻한 미소가 눈에 선하다.



처참한 구호현장, 나 자신을 반성하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구호품으로 받은 천막 등으로 맨바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박권선 | 대구삼덕교회 긴급구호봉사단

삼덕교회 긴급구호단원들과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공항에 도착하여 한국교회봉사단과 전주예수병원 선생님들과 첫인사를 나누었다. 급하게 가느라 필리핀 현지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갔었는데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상세히 안내해 주셔서 피해규모와 필리핀에 대해 듣게 되었다. 태풍 켈사나와 파르마로 인해 큰 홍수피해를 입은 필리핀 중남부 지역에 이재민이 250만 명이나 생겼고 우리는 침수지역인 깔람바 시의 링가마을과 난민촌이라 할 수 있는 로스바노스 지역의 태드락에서 의료 활동을 펴기로 했다.

첫날 링가마을의 링가교회에 도착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진료 준비를 했다. 처음 들어갈 땐 의자만 있던 교회 안의 의약품을 정리하고 간이 진료대를 만들고 보니 제법 괜찮은 진료실처럼 되었다. 현지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나는 약국과 내과 진료보조 등의 일을 했다.

오후에는 침수된 마을의 참상을 보게 되었는데 홍수가 난지 20일이 지났지만 물이 빠지지 않아 조그만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다. 마을사람들은 이층집의 반이 물에 잠긴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고 자동차며 가구 등이 어지럽혀 있었다. 나라면 절대로 저런 곳에서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원래 낙천적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놀라웠다. 힘든 처지에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로움에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부모님의 그늘에서 편하게만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둘째 날 태드락의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에 대나무로 엮어 천막을 엮은 집들이 쪽죽어서 있는 곳에서 우리도 천막 학교 바로 앞에 진료소를 만들게 되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도 없어서 구호품으로 받은 천막 등으로 맨바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어제 봤던 곳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뜨거운 햇빛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더위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다. 바로 옆 간이 학교의 아이들은 한 천막 아래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까지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심각한 것은 침수된 학교가 언제 복구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밝은 모습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천진난만한 얼굴이었다.

우리는 부족한 일손으로 각자 맡은 일에 매진하며 정신없이 이들을 보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고통받는 많은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처음 참여한 봉사활동이었지만 낯선 나라에 와서 낯선 이들과 함께 지낸 것은 뜻깊은 경험과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함께 봉사활동한 삼덕교회분들과 한국교회봉사단, 전주예수병원 분들 모두 부족하니 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봉사활동에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할 기회를 만들 줄 알고 찾아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현장을 가다

계속되는 여진...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지난 9월 30일(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주도인 빠당(Padang)에서 리히터규모 7.6의 강진이 발생, 바로 다음날 리히터규모 6.8의 강진이 연이어 일어났고 그 결과 사망자 1,300여 명, 부상자 2,500여 명, 실종자 3,000여 명, 가옥 84,000여 채 파손이라는 큰 피해를 가져왔다. 수마트라섬의 종교 분포는 이슬람이 98%, 기독교는 불과 1.6%로 이슬람이 압도적인 지역이다.

주도인 빠당(Padang)시가 주로 피해를 당했는데 인구는 90여만 명이고, 지진 피해가 반경 80km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로도 크고 작은 여진 300여 건이 발생하였다.

사랑을 전하다

인도네시아의 지진피해 소식을 접한 한국교회봉사단은 10월 2일(금) 전국 500여

교회에 성금 모금 공문을 발송하고, 10월 6일(화) 국민일보에 성금모금 광고를 게재하여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펼쳤다. 한편 10월 7일(수)부터 10월 10일(토)까지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를 비롯한 실무자 2명을 현지에서 파송하여 긴급구조사역을 수행하였다.

예장 통합측 인도네시아 선교사회(회장 김충환 목사, 재난대책위원장 최광수 목사)의 안내 및 협조를 받아 빠당시의 한 교회(GPIB-JEMAAT "EFRATA" PADANG)에 임시본부를 차리고 YTB INDONESIA(한국의 NCC 격의 단체로 인도네시아 8개 교단의 협의체)와 함께 빠당시내 꾸란지, 송아이 리마우, 캄뵙 달람 지역을 찾아가 20,000원 상당의 구호품물품세트(쌀(5kg), 라면(1박스), 비누(1개), 식용유(1kg), 케첩(맛간장), 설탕(1kg))를 1,100여 피해 가정에 전달하고 위로하였다.

전달된 구호물품은 5인 가족 기준으로 7일분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운반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2,800여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한 셈이다.

피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으로 인해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복구 현장에서는 시멘트 분진 및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단수와 단전으로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집이 무너지고 대부분의 가재도구와 주방도구를 잃은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텐트와 모포 그리고 주방도구이다.



기자가 본 인도네시아 구호현장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발걸음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기억됐으면...



박세롬 기자 | CTS

“지진이 계속 일어나서 무섭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깜짝 깜짝 놀라서 깨요”

18년간 살던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랑하는 1살배기 손자가 눈앞에서 목숨을 잃을 때의 심정은 어떨까. 지진피해주민들을 만나 얘기를 들으며 아픔이 생생히 전해오는 듯 했다.

지진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건물의 반이 무너져 내린 호텔, 매몰된 시신의 부패로 악취 가득한 시장터, 폭격을 맞은 듯 형체를 잃은 집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리. 하지만 아체지진과 쓰나미 등 이미 많은 재난을 겪어서 그럴까? 시민들의 표정은 담담했다. 정부 대처가 느려서 복구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구호물자가 있어도 골고루 나눠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잠깐의 구호활동이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교회봉사단이 예정통합 인도네시아선교사회와 협력해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이 진심으로 감동하고 위로를 얻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동행했던 현지운전기사 “다른 나라사람들은 구호본부에 물건을 놓고 가는데 한국인들은 멀리까지 하나하나 직접 전달해주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어디 사는 지도 모르는 다른 외모의 외국인들이 빠당사내에서도 2시간 떨어진 변두리 마을까지 오다니! 그들에게도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

한국인 선교사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98% 강경이

슬람 지역이기에 취재진도 카메라에 붙은 십자가를 가려야 했고 현지인들에게 교회에서 왔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발걸음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네시아에 일어나는 재난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결코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2004년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던 아체지역, 2006년 지진이 난 족자지역, 또 이번에 빠당 지역까지 모두 이슬람이 강해서 선교활동의 제약이 컸던 곳인데 대형재난들이 계기가 돼서 여러 기독단체가 들어가 구호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빠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손길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국교회의 구호 역량이 하나로 모여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곳곳에 전해주길 기도해본다.

먼 세상 이야기 아닌 우리 이야기

지금 그 곳은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고통의 땅이 되었다



김재영 PD | CBS

“니가 깜짝 놀랄 만 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최근에 나온 한 대중가요의 가사다. 화자는 떠나간 연인 혹은 누군가에게 이별이나 어떤 사건 이후에도 자신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너무도 아무렇지

않은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일어난 지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옥들이 파손되어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고통의 땅이 되었지만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에 별일 없이 살고 있다. 나의 고통이 아니기에 내 가족의 고통이 아니기에 뉴스에서 나오는 먼 세상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적어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일에 세밀하게 반응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인구의 98%가 회교도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지진이 일어났 수 많은 사람들이 다

치고 사원들이 부서진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빠당시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없어서 다행히도 한국인 선교사 중에 다친 사람이 없는 것이 정말 우연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한 사건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인지는 각자가 기도하며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분, 주님 뿐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위한 봉사를, 또 다른 이에게는 중보를... 우리는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된다. 별일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닌 모든 것에 세밀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시아 재해구호와 관련 방영된 프로그램

CTS

- 10월 10일(토) 13:00 재해구호 성금모금 특집생방송 '예수사랑여기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 10월 17일(토) 08:00 '뉴스M' (현장리포트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연재해 참사')
- 10월 24일(토) 10:50 '열방을 향하여' (아름다운 발걸음)

CBS

- 10월 19일(월) 08:00 '미션인터뷰' (아시아지역 재해현장엔 언제나)
- 10월 22일(목) 13:40 '현장간증 또 하나의 열매' (인도네시아 지진피해현장에 가다)
- 10월 28일(수) 13:40 '수호천사 사랑의달란트' (침묵한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현장 인도네시아파당 시내 지진피해 모습)

